

농촌특화지구 규제 풀고 지역 활력 높인다

농식품부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재구조화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 특화지구 활성화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남 합천군 쌍백면을 방문해 지역 주민과 마을기업 대표 등을 만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합천군에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농촌마을보호지구가 지정돼 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 생산·판매와 반려동물 동반 숙박·위케이션 공간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노후 계사를 철거한 뒤 마을 힐링 숲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촌특화지구를 중심으로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은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농촌 공간 관리체계 마련

△지구별 집중 지원과 특례 확대 △지정부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해 농촌 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성격이 유사한 다른 법률상 제도도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한다. 기존에 지정된 지구는 농촌특화지구로 편입하고, 신규 지구는 시·군 농촌공간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해 지정할 방침이다.

농촌특화지구 유형별 목표와 기본방향, 적용 사례, 인센티브 등

을 제시하고 지정 기준도 구체화·세분화해 지방정부의 활용도를 높인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산업·축산·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경관·농업유산·특성화농업 등 8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지구별 시설 집적을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소매점·목욕장·세탁소, 농촌산업지구의 제조업소·공장·창고 등 지구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축산지구와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농업진흥구역 내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농업법인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참여와 농업진흥지역의 발전사업 부지 활용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특화지구형으로 개편해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 등은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 시행계획 대신 지구 지정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후보군 발굴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방정부의 지구 지정을 지원한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농식품부 장관, 농촌특화지구 지정 현장방문하여 사업 관계자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농협 쌀, 해외 인증 한식당 20호점 달성

1호점 시작 1년 만에 인증 한식당 20곳으로 확대

농협경제지주(농협경제대표이사 김주양)는 프랑스 파리 국립 기메동양박물관에 위치한 유명 한식당 '한옥(HANOK)'에서 '해외 한식당 농협 쌀 인증제' 20호점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해외 한식당 농협 쌀 인증제'는 해외 한식당에 국산 농협 쌀 사용을 인증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파리 한식당 '순 그림 상젤리제'를 1호점으로 시작했다. 이후 파리 중심가 주요 한식당들이 참여하면서 시행 1년여

만에 인증 한식당 20호점을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농협이 3년 연속 프랑스에 고품질 담양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일반 소비자(B2C)를 넘어 현지 외식업체(B2B) 중심으로 수출 기반을 확대한 결과로 평가된다.



▲해외 한식당 농협 쌀 인증제 20호점 인증패 수여식 개최(농협 제공)

농협은 20호점 달성을 기념해 7월부터 파리 현지 인증 한식당과 함께 SNS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또는 농협 쌀 식사 후기를 인증한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즉석밥을 증정한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ACEMART 루브르점에서도 프랑스 현지 농협 쌀 수입·유통 파트너사인 ACE FOOD와 함께 한국·미국·베트남산 쌀로 만든 김밥과 주먹밥을 활용한 블라인드 시식 및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농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프랑스 B2B 시장 확대 전략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한국농업기술진흥원-LG생활건강

'Beauty Tech Greenovation' 참여기업 모집

농식품 분야 개방형 혁신 확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이석형, 이하 농진원)과 LG생활건강(대표이사 이선주)이 2026년 최초로 함께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Beauty Tech Greenovation'의 참여기업을 오는 8월 3일까지 모집한다.

'Beauty Tech Greenovation'은 농식품 분야의 우수한 천연물 소재와 혁신기술을 화장품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화 기회를 발굴하고, 유망기업과 대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LG생활건강은 원료 소재 개발부터 제품 기획·생산·브랜드까지 화장품 밸류체인 전반의 역량을 보유한 국내 대표 뷰티기업으로, 참여기업은



▲농진원 제공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부 및 연구진과의 협업, 기술 실증(PoC), 사업화 검증 등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모집 대상은 천연물 기반 화장품 소재·원료 기술 또는 기

능성 식품 소재 원료 및 공정 개발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이다. 선발된 기업은 LG생활건강 연구소 및 사업부와 단계별 미팅을 통해 협업 과정을 구체화하고, 실증(PoC, Proof of Concept)을 진행하며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받는다.

아울러 선정기업은 LG생활건강이 출자한 펀드를 대상으로 투자 IR(Investor Relations, 투자설명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농진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고,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추천하는 한편, 참여기업이 후속 성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차년도 '벤처창업활성화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연속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etimes.com

aT·EBS, 농수산물식품 인재 양성 확대 맞춘

농수산물식품산업 콘텐츠 발굴 및 K-푸드 확산 추진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농수산물식품산업 인재 양성과 농어촌 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해 손잡았다.

aT와 EBS는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물식품산업 인재 양성과 농어촌 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I·디지털 기반 농수산물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발굴 및 디지털 플랫폼 활용 △농어촌·농어민(축산)을 위한 정부 정책과 주요 사업 홍보 △농어촌 교육 격차 해소와 평생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 확산 등에 협력한다.

aT는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수출 진흥, 식품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앞으로 EBS가 보유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

는 교육·홍보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식품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농어촌 교육 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문표 aT 사장은 "앞으로도 농어촌과 농어민이 잘살고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사업을 펼치는 데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aT·EBS 농수산물식품산업 미래인재 육성과 국민 소통 강화업무협약 사진

농축환경신문

1998년 10월 26일 정간 등록번호 서울다 06693

(0407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0, 성지빌딩 601호
 기사제보 전화: 02-582-4016 팩스: 02-582-4002
 광고신청 전화: 02-582-4016
 이메일: press@nonguetimes.com
 홈페이지: www.nonguetimes.com
 자 매 지 농업경제
 발행간: 편집인 김대경 | 인쇄인 이정자
 구독신청: 배달안내 02-582-4016
 구독료 월 8,000원 / 년 90,000원
 농협은행 301-0328-9561-51 (농축환경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관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행복한농촌, 함께하는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7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